

광주시-전남도, e스포츠 상설경기장 유치 사활

게임 산업 육성 박차...전국에 3개소 구축 부산·대전·경남 등과 경쟁...이달말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유치에 나서며 등 게임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2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아시아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의 채택 움직임이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전국에 3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대전, 경남

등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결정된다.

광주시는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준비작업에 돌입해 조선대 등 1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벌여 2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지역에 유치되면 e-스포츠 시설 규격에 맞는 경기 시설과 방송중계 시설 등을 설치해 더욱 많은 팬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방송국과 기업 등과

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고 e-스포츠 경기 외에 게임 마케팅,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비 52억 원 등 110억 원을 들여 게임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게임산업 불모지였던 전남에 지난해까지 2년간 관련 기업 41개사가 창업, 매출액 68억 원을 기록하고, 청년 100여 명이 새로 일자리를 구했다. 이같은 성장 속도대로라면 전남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과학대에서는 전국 최

초로 2007년부터 e-스포츠를 개설해 매년 4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래머와 지도자로 9개국에서 3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표적 산학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만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e-스포츠에 대한 인지도와 흥행파워가 높아짐에 따라 충분히 전남의 발전을 이끌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순천시와 긴밀하게 손잡고 반드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농산물 가공업체 등 9곳과 255억 투자협약

담양·강진산단 등 입주

전남도는 글로벌에코바이오 등 9개 기업과 총 255억 원을 투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담양산업단지와 영암특화식품농공단지, 강진산업단지, 순천해룡산단 등에 입주한다.

강진산단에는 진성산업 등 3개 기업이 68억 원을 투자해 6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한다. 이들 기업의 투자로 강진산단 분양률은 64.2%에서 74.2%로 올라갔다. 진성산업과 진성이엔씨는 헬스케어 리트 구조물(만홀)을, 시온테크닉스는 무선자동차수리조립기를 생산한다.

담양산단에는 한국디피에스 등 2개 기업이 66억 원을 투자해 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디피에스는 단열재(방습패널)를, 창민산업은 강구조물(H형강) 가공품을 생산한다.

영암특화식품농공단지에는 코람데오

등 2개 기업이 53억 원을 투자해 35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코람데오는 조기·오징어·전복 등 수산물 가공품을, 해누리 농업회사법인인 양파즙·배즙·배도라지즙 등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한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글로벌에코바이오가 47억 원을 투자한다. 오는 8월까지 유가질 비료 제조공장을 건립해 생산 제품은 친환경 농가와 농협 등에 판매한다.

나주 혁신도시클러스터에는 농업회사법인 동명축산이 21억 원을 투자해 오는 10월까지 우육·돈육·양념육 등 육고기 가공시설을 건립한다.

선양구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투자가 현실화하면 모두 182명의 신규 일자리 생기고 전남지역 산단 투자유치 가속화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망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기업 눈높이에 맞는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 블랙이글스와 함께' 공군 블랙이글스가 올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이를 홍보하고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 이미지를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에 입혔다. 블랙이글스 요원들이 이미지를 입힌 항공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섬·바다 아름다운 전남서 해양레저 스포츠 즐기세요"

도, 올해 7개 대회 개최 체험교실 8개 과정 운영

전남도는 올 한 해 전남지역 해상에서 7개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열고, 해양레저 체험교실 8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다도해 풍광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 면허' 취득한 사람들이 지난 2017년 2만 1596명, 2018년 2만 1241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남에서 열리게 될 해양레저스포츠대회의 경우 오는 9월 7일-8일 목포 평화관광 수역에서 국제파워보트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국제대회 중 하나다.

여수에서는 올 8월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9월 전국 바다민수영대회가 열린다. 고흥에서는 오는 8월 23일-25일 전국 서핑대회가, 보성에서는 7-8월 레저벨 배대회, 8월에는 전국 비치발리볼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8월에는 함평에서 전국 비치발리볼대회가 열린다.

전남도는 또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이 손쉽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접하도록 6개 시군에서 8개 과정의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목포에서는 5-9월 요트 체험이, 여수에서는 같은 기간 딩기요트와 윈드서핑, 카약, 패들 보트교실이 열릴 계획이다. 광양에서는 7-8월 윈드서핑교실이, 보성에서는 5-11월 세일링보트, 씨카약, 레프팅보트, 항해교실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이밖에 장흥에서는 7-8월 수상 자전거와 투명카약 등 수상레저체험교실이, 함평에서는 6-9월 카약과 래프팅 체험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의 전남 개최와 연계해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멋진 해양 체험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253억 용자 지원

전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253억 원을 용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은 용자 80%, 자부담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자율 1%대 초저리로 양식어가에 지원된다.

1980년대부터 양식업이 본격화하면서 초창기 양식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지남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져 시설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육상양식장과 종자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해상 가두리시설과 해조류 양식시설 등을 경영하는 양식어업

인이다.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자금은 양식시설 신규 설치 또는 장비 구매, 기존 양식시설 보수 또는 장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육상양식장의 건축 및 배합사료 저장고 설치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에 필요한 밧줄, 부자, 닻 구입비까지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멸종위기종 관리 여부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맹장어와 신규면허가 제한된 전복에 대해서는 기존 양식장의 개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했다.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은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려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지사는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 빨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여순사건 재심 결정을 환영했다. 강정희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제도마저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선착순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